

# 光州日熙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0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9월 1일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 기후의 역습 … 전남 농수산업이 흔들린다

바다 고수온에 김ㆍ미역ㆍ전복 양식 산업 타격…연안 해수면도 상승 기온 올라 농업 지도 변화···사과·단감 재배지 북상·병해충도 기승

#### '한국기후위기평가보고서 2025'

전남의 농업과 양식산업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련기사 3·6면〉

현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이 유지되면 3년 내에 해 조류 서식 환경변화로 전복 등 양식업이 타격을 받 고 2100년이면 전남지역을 비롯한 해안 저지대 14 km 가 물에 잠길 것으로 분석됐다. 농작물도 급격하 게 아열대 작물로 대체되고 열대거세미나방, 솔껍 질깍지벌레, 벼멸구 등 아열대 해충도 북상할 것으 로 우려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평가보고서 2025'에 따르면 중장기적으 로 기온 수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전남 1차 산업 전반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예상 기온을 산출해 저배출, 중 간배출, 고배출 등 모두 4가지 단계를 설정한 뒤 단 계별 시나리오로 제시한 것이다.

전남을 대표하는 김·미역·전복 양식산업에는 경 보등이 켜졌다. 미역은 전남에서 탄소 중간배출 (SSP2-4.5)에서는 양식이 가능하지만, 고배출 시 나리오(SSP5-8.5)에선 생육 한계온도를 초과해 양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복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0년대부터 부정 적인 기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2100년에는 대 부분 해역이 '양식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멍게는 전 시기·전 지역에서 생존 불가능 판정이 내려졌

남해안 상층부의 고온일수는 지난 10년 새 1.7배 늘었고, 저층 용존산소는 9% 이상 줄었다. 이 변화 는 기초생산력 저하→양식 생물 스트레스 강화→질 병과 폐사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이 탓에 곰피·감태·다시마 등 갈조류 생산성이 낮

아져 전복 먹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 고서는 기존 갈조류 양식·자연생장 주기와 전복의 먹이 수요가 어긋나 '부족 시기'가 여름~초가을로 집중된다고 봤다.

전남 해역은 전국 갈조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남 고수온 피해액은 574억원, 저수온 피해액 은 81억원으로 최근 10년 최고치다.

보고서는 기술발달이 기온변화를 따라가지 못하 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고온성 품종 개발과 순환여 과식 양식장(RAS) 보급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 적용까지의 주기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어가 비중이 63%에 달하는 전남 수산업 구 조상 시설 투자, 기술 도입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평 가다.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SSP 5-8.5)에서는 2100 년까지 전남 연안 해수면이 최대 82cm 상승할 것으

이에 따라 해안 저지대 14km가 침수 위험구역으 로 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가 해양생태계뿐 아니라 연안 생활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의 농업 지도도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재 편되고 있다.

과거 남도의 대표 과수였던 사과와 단감 재배지 는 점차 북상하고, 그 자리에는 파파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이 새롭게 둥지를 틀고 있다. 여기에 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9년간(1912~ 2020년) 전 세계 평균(1.09℃)보다 높은 약 1.6℃ 가 상승했다. 급격한 기온 상승은 남도의 농업 환경 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상 기온은 병해충양상도 바꿔놓았다. 열대거



기후위기로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광주시 서구 서창들녘에서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수 황금들녘에 벼 깨씨무늬병 확산 확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ina@kwangju.co.kr

세미나방, 솔껍질깍지벌레, 벼멸구 등 아열대 해 충의 북상이 확인됐고, 기상관측자료와 연계한 예 찰 결과 전남남부 권역에서의 월동생존률이 2010년대 초 60%에서 2020년대 후반 85%로 늘

벼 깨씨무늬병, 잎도열병 등 신규 재해 발생 빈도 도 5년 새 30%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 기 위해 농어업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고 입을 모은다.

기후변화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다변화하며,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더욱 촘 촘히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지원과 농 민들의 자구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LS그룹, 해남에서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시동'

## 전남도와 수천억원 투자협약 해상풍력 전용 항만 조성 기대

국내 전선, 전력설비 대기업인 LS그룹이 전남 해남군에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LS그룹의 투 자로 전남이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 에서 ㈜LS전선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 ㈜LS 마린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해 남군에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항만은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 한 대형 기자재의 조립·적재, 선박 정박 및 울트라 커패시터(UC) 기반 모듈 제조 기능을 갖춘 복합 인프라다.

LS머트리얼즈가 블레이드, 터빈, 러셀 등을 조 립할 수 있는 항만 조성을 담당하고, ㈜LS마린솔 루션은 항만을 거점으로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해상 케이블 설치가 가능한 1만3000t급 선박을 운용하게 된다.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투자가 실현되면 해남군에 해상풍력 전용 항만이 조성돼 연관기업 연쇄 유입 이 이어질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체적인 항만 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 만, 대한조선이 조성 중인 화원산업단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LS그룹의 투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해안에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SK그룹과 오픈AI가 AI 데이터센터 조 성을 약속하면서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투자 협약을 계기로 LS전선은 제조·설치 파트를

중심으로 전남으로 단계적 자회사 이전도 추진할

전남도는 LS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의 신규 투 자와 연관기업 입주가 현실화 될 경우 해남 'LS 클 러스터' 조성으로, 전남판 '덴마크 에스비에르항' 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전남 투자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도록 전남도 자체적으로 LS라는 에너지 앵커기업 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 며 "이번 협약은 전남이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도 약하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

한편,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 이상호 재경구매본부장/CFO,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 김병옥 ㈜LS마 린솔루션 대표이사,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참석했 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민주,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 하면이 대통령은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수있 게 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Passion [열정], Vision [習],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큰 줄기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 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 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

▶22면

꼰대들의 대학원 - 바뀌지 않는 상이탑

굿모닝 예향 - 예향의 굿즈 & 뮷즈

법성고 농구부,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 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 는 '재판소원'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의견으 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재 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